



중국 철강 산업 개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김광래 상무

**중국발 전 세계적인 철강
공급과잉으로 세계
주요국은 자국의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무역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5월 미국 상무부가 한국, 중국, 인도, 이탈리아, 대만 철강업체들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국 철강업체들은 업체별로 최소 8.75%에서 최대 47.8%까지 반덤핑 관세가 부과됐으며 중국 철강업체들은 최대 451%(반덤핑관세율 209.97%, 상계관세율 241.07%)의 관세가 부과됐다. 또한, 미국 철강협회는 중국 등의 철강 덤핑 수출과 불법 보조금 지원으로 일자리가 사라지고 설비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다며 긴급수입제한조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EU는 최근 중국 제품에 대해 반덤핑·상계 관세 규제 관련 조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일본도 자국 철강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반덤핑 관세 부과 요건을 완화해나가기로 했다고 한다. 최근에는 이러한 분위기가 아시아 및 중동 국가들에게도 확산되고 있으며, 얼마 전 말레이시아 통산산업부도 한국, 중국, 베트남 철강업체들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세계 주요국들의 철강에 대한 보호무역 움직임은 중국발 전 세계적인 철강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국의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하에서는 전 세계적인 철강 공급과잉의 진원지인 중국 철강산업의 현황에 대해 요약해보고자 한다.

<참조 : 무역구제 조치>

반덤핑 관세 (Anti-Dumping: AD)	덤핑(정상가격 미만) 판매 및 이에 따른 수입국의 산업 피해 증명 시 덤핑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
상계 관세 (Countervailing Duties: CVD)	외국 정부가 특정산업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보조금에 대하여 수입국 산업 피해 증명 시 부과하는 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 (Safeguard: SG)	일정기간 특정물품의 수입량이 절대적 증가 등에 따른 수입국 산업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될 때 관세 인상 또는 수입량 제한

세계 철강 생산 현황

중국은 세계 철강 생산의 약 50%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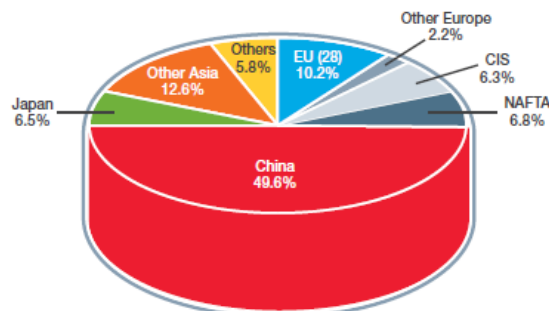
세계철강협회(Worldsteel Association)에 따르면 중국의 철강 생산량은 2014년 약 823백만 톤, 2015년 약 804백만 톤으로 일부 감소했지만 전 세계 철강 생산량의 약 50%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5년 기준 일본과 인도가 2위와 3위로 각각 약 105백만 톤, 약 89백만 톤을 생산했으며, 한국은 6위로 약 70백만 톤을 생산했다.

2014년, 2015년 주요 국가별 철강 생산량 (단위 : 백만 톤)

Country	2015		2014	
	Rank	Tonnage	Rank	Tonnage
China	1	803.8	1	822.8
Japan	2	105.2	2	110.7
India	3	89.4	4	87.3
United States	4	78.8	3	88.2
Russia	5	70.9	6	71.5
South Korea	6	69.7	5	71.5
Germany	7	42.7	7	42.9
Brazil	8	33.3	9	33.9
Turkey	9	31.5	8	34.0
Ukraine	10	23.0	10	27.2
Italy	11	22.0	11	23.7
Taiwan, China	12	21.4	12	23.1
Mexico	13	18.2	13	18.9
Iran	14	16.1	14	16.3
France	15	15.0	15	16.1
Spain	16	14.8	16	14.2
Canada	17	12.5	17	12.7
United Kingdom	18	10.9	18	12.1
Poland	19	9.2	19	8.6
Austria	20	7.7	20	7.9

(출처 : 세계철강협회(Worldsteel Association))

2015년 주요 국가별 철강 생산비중 (단위 : %)



(출처 : 세계철강협회(Worldsteel Association))

중국 철강 생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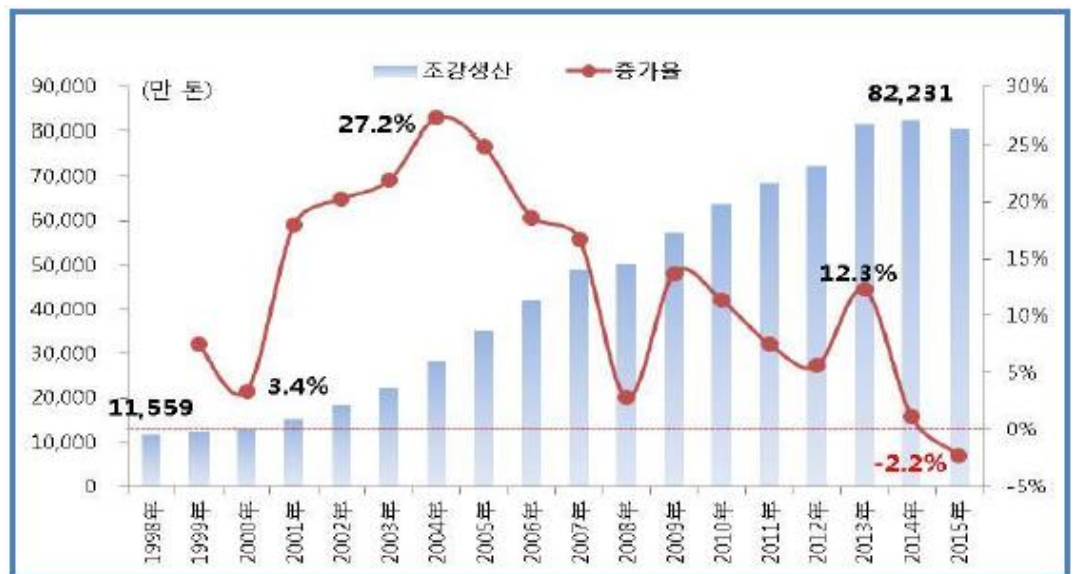
2015년 중국 철강 생산이 감소했으며, 중국은 세계 철강생산 과잉능력에서 약 67%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세계 철강 산업은 2000년대 초 차이나 붐으로 호황을 누렸으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국 경제 성장률이 저하되고, 조선, 건설 등의 수요 산업의 성장 둔화로 철강 생산 과잉 능력이 2008년 300백만 톤을 넘었고, 2015년 600백만 톤을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우리나라의 연간 철강 생산량의 약 9배 가량 되는 규모이다. 철강 설비 가동률도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는 80%를 상회했으나 이후 70%대로 하락했고, 2015년에는 69%까지 하락했다고 한다.

중국은 2000년대 초 중국 경제의 고속성장과 철강 설비 증가로 철강 생산이 빠르게 증가했으나(2000년~2004년 연평균 21.8% 증가), 2005년부터 설비과잉으로 증가율은 낮아졌고(2005년~2008년 연평균 12.5% 증가), 2008년 금융위기로 증가율이 더욱 낮아져(2009년~2014년 연평균 7.5% 증가), 결국 2015년에는 전년대비 생산량이 감소했다(△2.2%).

세계 철강생산 과잉능력에서 중국이 약 67%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 철강생산 추이



(출처 : 중국국가통계국, 포스코경영연구원)

중국 철강 수출 현황

중국은 2015년 111백만
톤의 철강을 수출했고,
세계 여러 국가들과
통상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중국의 철강 과잉 생산으로 인해 중국 철강 제품은 자체 소비되지 못하고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다. 중국은 2006년부터 철강 순수출국이 되었으며 철강 수출량은 2009년~2015년 연평균 약 29%로 증가했다.

중국 철강 수출 규모는 2012년 56백만 톤에서 2015년 111백만 톤으로 2배 증가했는데 이는 전 세계 철강 교역량의 약 20%를 상회하는 규모라고 한다. 세계 철강 수출 2위와 3위인 일본과 한국은 ASEAN 등 주요 수출시장에서 중국 철강 제품과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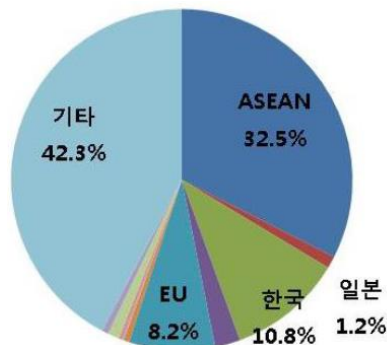
세계 여러 국가는 자국 철강 시장 보호를 위해 반덤핑 관세 등 무역규제를 강화하면서 통상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중국 철강 수출입 및 순수출 추이



(출처 : POSCO-China, 중국해관, 포스코경영연구원)

중국 철강 수출국가별 비중



(출처 : POSCO-China, 중국해관, 포스코경영연구원)

중국 철강업계 현황

중국 철강업계는 매출과 수익성이 부진해 적자기업수가 증가하고 있다.

중국강철공업협회(China Iron and Steel Association, CISA)의 101개 회원사 세전이익은 2007년~2011년 연평균 930억 위안이었으나 2012년~2014년 연평균 183억 위안으로 낮아졌고, 2015년에는 적자로 전환됐다. 적자기업의 수는 2008년을 제외하고 2007년~2011년 7~8개 정도 수준이었으나, 2012년 23개로 증가하여 2015년에는 51개까지 증가했다.

중국 철강기업의 적자전환은 롤마진(철강 판매가격에서 철광석 등 원재료 가격을 차감한 금액)의 축소에 의한 것이다. 중국 열연 내수가격과 철광석 현물 수입가격간의 격차가 2014년 초에는 약 450달러 였으나 2015년 말에는 약 250달러까지 감소했다.

한편,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동시에 판매도 부진하여 매출액도 감소했다. 2015년 매출이 전년대비 19.1%가 감소하여 28.9조 위안을 기록했다.

또한, 위안화 평가절하로 달러 및 유로화 부채규모도 증가했다고 한다.

특히 중소 철강업체들 중엔 경영실적 악화에 따른 자본잠식 기업이 늘어나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재정확대를 통한 수요창출, 수출 증치세 환급률 인상으로 수출촉진, 적자 기업에 대한 손실 보전 등의 각종 지원책으로 부실기업의 퇴출을 지연시켜 좀비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중국강철공업협회 회원사 세전이익 및 적자기업수 추이



(출처 : 연합강철망, 포스코경영연구원)

중국 철강업 구조조정 현황

중국은 지속적으로 철강 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감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중국은 철강 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계획을 수 차례 발표하는 등 노력을 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2009년 철강 산업 구조조정 진흥계획에서 2011년 철강 생산을 5억 톤 수준으로 유지하는 생산총량 규제를 발표했으나 달성에 실패했고 철강산업 12.5 계획(2011년~2015년)에서 2015년까지 10대 철강사 생산집중도 60%를 목표로 했으나 최근 2025년으로 기한을 연장했다.

2015년 말 부터 중국은 공급과잉 산업의 구조조정을 포함하는 “공급 측 개혁”을 강조했으며, “공급 측 개혁” 대상의 우선순위로 철강과 석탄 산업을 선정했다.

2016년 초 리커창(Li Keqiang) 총리는 정부업무보고에서 향후 5년간 1억~1억5천만 톤의 철강 과잉설비를 감축할 것으로 발표했고, 산업구조조정기금을 조성(매년 약 1천억 위안 조성)해 이 기금 중 약 20%를 철강산업 구조조정에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16년 초 중국 국무원은 철강산업 과잉설비 해소 의견을 발표해 철강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의지를 강조했다.

그러나 중국 철강 과잉설비의 규모는 3억~4억 톤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서 2020년까지 1억~1억5천만 톤의 과잉설비 감축 목표가 단기간 내에 가시적인 효과를 보기는 불분명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12.5 계획 기간에 9,500백만 톤의 노후 설비를 정리했으나 이를 초과하는 신규설비가 증설되어 과잉설비가 정리되지 않았다. 2015년 1,340만 톤 신설비가 가동됐고, 2016년 2,790만 톤의 신설비가 가동이 예정돼있어 설비 감축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과거 여러 방안이 추진됐지만 지방 정부의 세수와 일자리 감소 등이 큰 부담으로 작용되어 과잉설비 해소가 쉽지 않았다.

한편, 얼마 전 폐막한 8차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미국과 중국은 중국발 공급과잉 상태인 철강 생산을 줄이기로 합의했다. 중국이 큰 틀에서 감산을 합의했으나 상세한 감산 계획을 밝힌 것은 아니어서 실질적인 철강 생산을 줄이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의 예측이다.

시사점

사업재편, 구조조정,
기술개발, 원가절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중국의 철강 감산은 ASEAN 등 주요 수출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한국 철강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이 될 것 이라는 관측이 일반적이다. 다만 중국의 실질적인 철강 감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되며, 한국 철강업체는 그 사이 체질강화를 위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재편, 비핵심사업 구조조정, 기술개발을 통한 중국산 철강 제품과 차별화, 원가절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World Steel in Figures 2016”, 2016년, Worldsteel Association

“2016년 전세계 철강산업 화두는 통상마찰”, 2016년, 포스코경영연구원

“철강, 중국 구조조정이 핵심”, 2016년, 포스코경영연구원

“되짚어보는 2015년 중국 철강산업 5대 특징”, 2016년, 포스코경영연구원

“G2 “中철강 감산-위안화 절하 자제” 합의”, 2016년, 동아일보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a UK private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DTTL”), its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kr/about for a more detailed description of DTTL and its member firms.

Deloitte provides audit, consulting, financial advisory, risk management, tax and related services to public and private clients spanning multiple industries. With a globally connected network of member firms in more than 150 countries and territories, Deloitte brings world-class capabilities and high-quality service to clients, delivering the insights they need to address their most complex business challenges. Deloitte’s more than 220,000 professionals are committed to making an impact that matters..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its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network”)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entity in the Deloitte network shall be responsible for any loss whatsoever sustained by any person who relies on this communication.